

병원도서관 사서의 독서지원서비스에 대한 인식 연구: 국내 병원도서관을 중심으로

박정미

강북삼성병원 의학정보실

A Study on Hospital Librarian's Recognition of Reader's Advisory Services: Focused on Korean Hospital Libraries

Jung Mi Park

Medical Information Library, Kangbuk Samsung Hospital, Seoul, Korea

Purpose: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current conditions of reading advisory services of hospital libraries, to conduct survey on the librarian's of recognition about reading advisory services, and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urvey, to provide basic data for reading advisory services of hospital libraries.

Methods: To do this, email survey was conducted on 93 librarians of 80 hospital libraries among the member libraries of The Korean Medical Library Association, and 62 librarians of 50 hospitals responded to the survey and 2 responses from the administrative job group were excluded from those responses, so a total of 60 copies of responses were used for the final analysis.

Results: In this research, first, after investigating the current conditions of what kinds of reading support service the hospital libraries provide for the patients, the frequency analysis was conducted.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ed was very low with. Second, after investigating the questions about the perception of, and hindering factors for, the librarians' reading support services, completing reading education courses, improvement of the system, establishing the support cooperation system, the frequency analysis, T-Test, ANOVA analysis were conducted.

Conclusion: It can be seen that the librarians in the hospital libraries perceive highly of providing reading support services for the patients. It also can be seen that in order to provide the reading support services, In addition, the librarian's desire to activate the reading support service is as follows: First, librarian's recognition and attitude change, second, system improvement, and third, and third, the librarian's reading education course is very important factor. [J Korean Med Libr Assoc 2016;43(1,2):30-39]

Keywords: Hospital library, Patient library, Hospital librarian, Reader's advisory services, Recognition

Received October 15, 2016, Revised November 20, 2016, Accepted December 16, 2016

Corresponding author: Jung Mi Park

Medical Information Library, Kangbuk Samsung Hospital, 29 Saemuanro, Jongno-gu, Seoul 03181, Korea

Tel: 82-2-2001-2793, Fax: 82-2-2001-2799, E-mail: jm0827.park@samsung.com

이 논문은 박정미의 석사학위논문 일부 수정하여 작성한 것임.

Copyright © 2016 The Korean Medical Library Association. All rights reserved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전통적인 병원도서관의 역할은 의료진을 대상으로 학술 자료를 구비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일이었으나, 1980년대 초부터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에서 환자의 권리가 보장되는 등 의료의 질적 변화 관련하여 환자에 대한 오락적, 교육적, 치료적 기능의 도서관 봉사가 요구되고 있다. 최근 국내 병원에서도 입원 환자나 보호자들의 정서적 안정 도모와 여가 활용으로 지친 심신을 치유할 수 있도록 책임있는 사회문화재단¹⁾의 ‘책 읽는 병원’ 프로젝트나 일부 기업들의 도서관 건립 사업 지원을 받아 독서활동을 권장하고 있다.

이처럼 국내 병원에서도 독서활동이 권장됨에 따라 병원도서관 사서도 환자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독서지원서비스(Reader's Advisory Service)를 제공하여야 하나[1], 실제 국내 병원도서관에서는 봉사 대상을 의료진 중심의 직원용인지 또는 환자용인지에 따라서 그 기능마저 서로 다른 실정이다.

이와 관련된 국내 도서관법 제 2조의 7항에 의하면 ‘전문도서관’이라 함은 설립 기관·단체의 소속 직원 또는 공중에게 특정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한국의학도서관협회(Korean Medical Library Association, KMLA)²⁾에 기관회원으로 가입된 의과대학, 병원, 제약회사 및 관련 연구소 도서관 178여 개가 전문도서관에 포함된다.

하지만 현재 국내에서 사용하는 병원도서관의 명칭과 도서관의 유형 구분은 도서관법 제 2조의 4항에서 공공도서관으로 분류되어 있고,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사람이나 보호자 등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만 그 기능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환자도서관으로의 명칭 변경 등 관련 도서관법 개정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도서관협회(American Library Association, AMA)에서 발행한 문헌정보학용어집에서는 병원도서관을 ‘의료인, 준의료인, 연구원, 행정가, 교육 담당 직원 또는 환자 등의 정보 요구를 제공해 주기 위해 병원에서 설립, 유지하는

도서관’이라고 하여 의료진과 환자에 대한 도서관으로 규정하였다[2]. 미국의학도서관협회(Medical Library Association, MLA)에서는 병원도서관을 ‘병원 의료진과 병원 관리를 위한 모든 학술 연구활동을 지원하고 환자교육 등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서관’이라고 하였다[2].

이러한 국내외 병원도서관의 기능에 근거해서 볼 때 병원도서관의 주요 서비스가 환자의 진료·교육·연구에 필요한 학술정보자료를 구비하여 의료진에게 제공할 뿐만 아니라 환자의 정신적 건강을 증진시키고 교육적 역할을 담당하여 대국민 보건서비스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2. 연구 목적

국내 병원도서관에서도 환자의 질병을 치료하고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사서의 체계적인 독서지원서비스 제공이 필요하지만, 아직까지 의료진을 위한 의학정보서비스 제공 업무만이 강조되고 있으며 관련 선행연구도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병원도서관의 독서지원서비스 운영 실태 조사와 관련 활성화 방안에 대한 사서의 인식을 조사하여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3. 용어의 정의

1) 독서지원서비스(Reader's Advisory Service)

독자자문서비스로도 불리며 20세기 초부터 북미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오락적인 독서나 연구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원하는 개별 이용자에 대한 안내서비스(guidance)를 의미한다.

2) 독서치료(Bibliotherapy)

독서치료는 읽기 매체를 매개로 하여 치료자와 내담자가 만나 내담자가 직면한 심리적, 정서적 문제를 치료하는 것이다. 독서치료(Bibliotherapy)는 고대부터 알려지고 실시되어 왔지만 그 용어 자체의 기원은 20세기초에 Crothers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 후 1941년 Doland's Illustrated Medical Dictionary에 그 정의가 처음으로 실리게 되었고, 병원도서관협회는 1961년 Webster's Third New International Dictionary의 사전적인 정의를 공식적으로 받아들이고 지금에 이르게 되었다.

1) 2001년 6월에 ‘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을 위하여 9개의 시민 연대 단체가 모여 설립
2) 1968년에 국내외 의학도서관의 상호협력과 발전을 도모하고 의학사서의 자질함양을 목표로 설립한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의 사단법인

3) 병원도서관(Hospital Library)

설립 기관의 모체인 병원의 한 부서로서 병원의 세가지 기능인 환자 진료, 교육, 연구 조사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의학 관련 자료를 구비하여 제공하는 도서관을 의미한다.

4) 환자 보건정보자료(Patient Health Information Resources)

환자 및 보호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건강관리와 질병 치료에 관한 정보 자료를 의미한다. 의학전문서적, 인터넷 정보, 시청각자료, 팸플릿, 소책자, 도서, 잡지 등의 인쇄물이 포함된다.

5) 환자도서관(Patient Library)

환자들이 질환 및 장애로부터 회복 및 적용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모든 연령의 환자들에게 적절한 오락적, 치료적, 교육적 자료 및 봉사를 제공하는 도서관을 의미한다.

연구 방법

1. 문헌고찰

1) 국내

본 연구는 병원도서관 및 독서지원서비스에 대한 국내의 선행 연구에 대하여 문헌고찰을 하였다. 문헌고찰 결과 국내에서는 주로 의사나 의학자들의 정보 요구 및 이용 행태를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며 병원도서관에서의 독서지원서비스에 관한 연구는 매우 적은 편이다.

본 연구와 관련된 선행연구 분야는 총 6개 범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첫째, 독자자문서서비스, 둘째, 독서치료, 셋째, 병원도서관 봉사, 넷째, 사서의 독서전문가 계속교육, 다섯째, 소비자 보건정보서비스 활성화, 여섯째, 환자도서관 운영의 범주로 구분하였다.

첫째, 독자자문서서비스에 관한 연구에서 박은자는 도서관 직원과 경영진에게 독자자문서서비스의 중요성과 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독자자문서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기본 기술을 소개하였다[3].

최상희는 독서지원서비스가 활성화되어 있는 미국 공공도서관 200개의 홈페이지를 분석하여 총 9개의 독서지원서비스(Reader's Advisory Service)의 유형을 도출하였다. 독서지원을 위하여, 추천도서, 북 리스트, 뉴스레터 및 신간 안내, 도서관 관련 정보 제공, 저자 정보 제공, 북 클럽관

련 정보, 지역관련 특화된 정보 제공, 기타 서비스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정보를 제공하였다[4].

둘째, 독서치료와 관련된 연구에서 장귀녀는 병원도서관 봉사로서의 독서요법 적용 가능성에 관한 연구에서 환자 봉사를 위해 병원행정가들은 병원도서관과 사서를 보다 적극적으로 유용하게 활용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5].

김경채는 의학도서관의 독서치료 적용가능성에 관한 문헌 조사에서 의료진만을 위한 서비스에서 벗어나 병원의 내부 고객인 교직원과 외부 고객인 환자, 보호자들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학도서관계에서 <상황별 독서목록 환자·보호자편>을 발간하고 독서치료가 의학도서관의 크나 큰 서비스 영역임을 재삼 인식하고 공공도서관이나 학제간 팀워크를 구축하는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하였다[6].

셋째, 병원도서관 봉사에 관한 연구에서 이미경은 병원도서관의 환자에 대한 봉사를 중심으로 연구를 하였다. 1) 환자들의 독서 경향은 62.9%가 병원에서 손쉽게 구해지는 책을 읽었다. 2) 외과계 환자가 독서 욕구 및 독서 경험이 많았다. 3) 6개월 이상의 장기 입원 환자가 독서 욕구가 많았다. 4) 84%의 의사가 독서 행위가 치료 및 회복에 도움이 되며, 76%가 환자의 독서지도를 위하여 담당의사와 도서관 봉사 담당자간의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7].

오문숙은 병원도서관의 정보 봉사 활성화 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사서의 의사결정권, 도서관 조직 규모, 사서의 전문성 등이 정보봉사 활성화에 유의한 상관 관계가 있음을 밝혀냈다. 또한 이러한 요인들보다 먼저 병원도서관의 중요성에 대한 병원 경영층의 인식과 법적, 제도적인 개선, 전문사서의 양성이 선행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8].

넷째, 사서의 독서전문가 계속교육에 대한 연구에서 정은영은 공공도서관의 사서를 중심으로 독서전문가로서 사서 역할에 필요한 계속교육에 대한 수요 조사를 하였다. 조사결과 도서관 활성화 및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하여 1) 독서전문사서 양성, 독서로 특성화된 사서를 위한 계속교육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 운영하고 2) 그 교육 내용은 실무에 활용 가능성이 높은 실리적 학문으로 구성하고, 3) 사서들의 서평쓰기, 4) 어린이·청소년·성인 자료와 독서지도, 5) 도서관 자료 활용 독서, 6) 한 도시 한 책 읽기

등의 독서운동 방법론 등의 세밀한 주제별 과정의 교육내용을 개발해야 한다고 하였다[7].

다섯째, 환자와 보호자를 위해 제공되는 소비자보건정보서비스에 대한 연구에서 운영대는 의학도서관의 임상의학 정보봉사로서 환자에 대한 보건정보 봉사를 소개하였다. 1984년에 일본환자도서관연구회를 조직하고 있는 自治 의과대학에서 환자에 대한 봉사를 시작하였다. 별도의 시설없이 기존의 의학도서관을 일부 개조하여 자원봉사자들이 환자에게 독서물을 제공하는 것에서부터 도서관 기능으로 편입하여 이를 모체로 발전시켜나아가야 한다고 하였다[9].

흥기선은 소비자 보건정보서비스의 활성화 방안 연구에서 국내 병원도서관과 공공도서관 사서들은 소비자보건정보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병원도서관 내에 환자도서관을 설치하여 적극적으로 소비자 보건정보서비스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병원도서관이 환자 및 가족을 위한 의학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용 보건정보자료의 적극적인 수집과 관련 서지류도 개발해야 한다고 하였다[10].

여섯째, 환자도서관에 관한 연구에서 김민희 등은 서울의 500 병상 이상의 병원 중에 환자도서관을 운영하는 병원 2개를 대상으로 운영 실태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병원은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환자들이 질병 관련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하며 편리한 도서대출 방법과 도서 외에 인터넷 등 온라인 정보 제공을 위한 시설 확충, 자격증을 소지한 사서의 고용을 통해 환자에게 적절한 전문적인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11].

위에서 살펴본 총 6개 범주에 대한 국내 선행연구를 종합해 보면, 현재 병원도서관에서 사서들이 의료진을 위한 도서관서비스는 잘 수행하고 있으나, 환자의 권리와 편의를 위한 체계적인 독서지원서비스 제공에 대한 선행연구는 아직 미비한 실정임을 알 수가 있다.

2) 병원도서관과 독서지원서비스의 배경

병원도서관은 1276년에 고대 이집트 카이로에서 내과 및 외과적 치료 이외에 희망하는 환자에게 주야로 코란을 읽어주거나 음악 또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도서관이 최초로 설립되었다. 이처럼 병원도서관은 책과 독서가 환자의 기분을 전환시켜 주거나 즐거움을 제공하여 마음을 고양

시키는 역할보다 환자의 재활을 촉진시킨다는 인식으로 발전하였다.

17~18세기에는 영국, 프랑스, 독일 등에서 정신과 의사가 정신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독서 처방을 제시하였고, 이에 정신병원은 환자를 위한 도서관을 운영하였다.

반면에 미국의 환자에 대한 도서관 봉사는 1811년 메사추세츠병원(Massachusetts General Hospital)에 종교서적의 환자문고 설치가 시발점이 되었으며 1차 세계대전 중 부상 군인에 대한 치료적, 오락적 목적으로 확산되었다. 전쟁이 종식된 후 병원도서관 봉사의 필요성이 인식되어 적십자와 자원봉사단체의 기부금 및 기증도서로 환자를 위한 병원도서관이 운영되었다.

이후에 환자도서관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국제 병원도서관위원회가 발족되었고, 1916년에는 미국도서관협회(American Library Association, ALA)가 병원도서관위원회를 설치하였다. 1924년에는 ALA에 ‘병원도서관 라운드테이블’이란 조직이 등장하면서 최초로 ‘병원환자도서관’을 위한 “전문도서관협회기준”을 발행하였다. 그러나 2002년에 미국의학도서관협회(Medical Library Association, MLA)가 ‘병원도서관기준’을 발표하고 2004년과 2007년에 일부 개정하였으나 그 내용을 보면 서비스 대상에 모든 사람이 포함되어 있고 환자도서관을 위한 기준은 별도 제정하지 않고 있다.

“인간은 대뇌를 활용한 독서를 통하여 스트레스 해소, 우울증 개선 효과, 공감능력 향상, 어휘력 향상, 뇌 활성화를 통한 치매 예방, 폭 넓은 지식 습득 등을 할 수가 있다. 이처럼 독서의 중요성은 국내외 여러 문헌 연구결과에도 나타나고 있으나 2009년에 영국 서섹스대학의 인지신경심리학과 데이비드 루이스(David Lewis)는 스트레스 해소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독서라고 발표하였다. 그는 독서를 통해 스트레스가 얼마나 감소되는지를 측정한 결과, 6분 정도 책을 읽으면 스트레스가 68% 감소하고, 심박수가 낮아지며 근육의 긴장이 풀린다고 하였다. 이어 음악 감상은 61%, 커피 타임은 54%, 산책은 42%, 비디오 게임 21%의 스트레스 해소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12].”

연구대상 및 내용

국내 병원도서관의 독서지원서비스 운영 실태를 알아

보기 위하여 이메일 설문지를 배포한 병원도서관의 범위는 ‘한국의학도서관협회 회원현황 2011’을 참고하여 도서관의 모기관인 병원이 2011년도 인턴·레지던트 수련병원으로 지정된 78개의 병원도서관을 선정하였다[13].

조사 대상을 병원도서관의 사서로 제한한 이유는 국내 문헌고찰 결과 독서지원서비스는 모든 도서관에서 제공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전문적인 의학지식을 갖춘 병원도서관의 사서가 환자와 보호자에 대한 독서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적합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본 연구 내용은 병원도서관 사서의 독서지원서비스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4가지 사항을 조사하였다.

첫째, 병원도서관의 독서지원서비스 운영 실태 조사는 12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둘째, 환자에 대한 독서지원서비스 활성화 요인으로 1) 사서의 인식과 태도 2) 제도 개선 3) 사서의 독서교육과정 이수 4) 지원 협력 체계가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독서지원서비스 활성화를 방해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넷째, 병원도서관에 근무하고 있는 사서들의 성별, 연령, 학력, 경력, 자격증 등의 배경 변인에 따라 독서지원서비스의 차이점은 있는가?

연구 결과

1. 병원도서관의 독서지원서비스 운영 실태 분석

1) 응답자의 개인적인 특성

응답자의 개인적인 특성은 1) 성별, 2) 연령, 3) 기관 소재지, 4) 학력, 5) 사서 자격증, 6) 의학사서 자격증, 7) 의료기관 형태, 8) 도서관의 유형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성별은 여자 사서(78.3%), 연령은 40대(51.7%), 기관 소재지는 서울(53.3%), 학력은 대졸(65.0%), 사서 자격증은 2급 정사서(81.7%), 의학사서 자격증 소지자(55%), 의료기관 형태 중 종합병원(55%), 도서관의 유형 중 병원도서관(68.3%)로 나타났다(표 1).

2) 독서지원서비스 운영 실태 조사 결과

국내 병원도서관에서의 독서지원서비스 운영 실태 조사 항목은 1) 환자 도서관 설치 유무, 2) 도서구입 예산, 3)

자료 열람 공간 구비 유무, 4) 독서서비스 담당자, 5) 독서서비스 환자 유형, 6) 도서관리 프로그램 설치 유무, 7) 독서지원서비스 종류, 8) 자료 이용 순위, 9) 자료 유형, 10) 환자들의 자료 요구도 유무, 11) 자료 제공시 이용 근거 자료, 12) 자료 회답 시 방해 요인으로 총 12개 문항이었으며 각 항목에 대한 빈도 분석 결과를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1) 환자도서관 설치 유무: 현재 병원에 환자도서관이 설치되었는가를 묻는 문항에 대한 설문 결과는 아래의 (표

표 1. 응답자의 개인적인 특성 분포도

변인	구분	빈도(명)	비율(%)
성별	남	13	21.7
	여	47	78.3
연령	20대	4	6.7
	30대	15	25.0
	40대	31	51.7
	50대	10	16.7
	60대	1	1.7
기관 소재지	강원도	2	3.3
	경기도	11	18.3
	경남	1	1.7
	경북	1	1.7
	광주	2	3.3
	부산	6	10.0
	서울	32	53.3
	울산	1	1.7
	충청도	2	3.3
	충청도	2	3.3
학력	전문대 졸	1	1.7
	대학교 졸	39	65.0
	대학원 졸	16	26.7
	박사 재학 중	2	3.3
	사서교육원 졸	1	1.7
	기타	1	1.7
사서 자격증	1급 정사서	9	15.0
	2급 정사서	49	81.7
	준사서	2	3.3
의학사서 자격증	그렇다	33	55.0
	그렇지않다	27	45.0
의료기관 형태	상급종합병원	26	46.3
	종합병원	33	55.0
	병원 등	1	1.7
도서관의 유형	의대도서관	3	5.0
	의대분관	3	5.0
	의대 및 병원도서관	13	21.7
	기능		
	병원도서관	41	68.3

2)처럼 평균 31.7%가 설치되었다.

환자 도서관 설치가 되어 있는 경우의 담당 부서는 아래의 (표 3)과 같이 사회사업실에서 평균 42.9%로 가장 많이 담당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병원도서관이 28.6%, 종교실은 19%, 총무과는 4.8% 순으로 조사되었다.

환자용 도서구입 예산 (표 4) 와 같이 36.7%가 있었으며, 환자용 자료열람실이 분리되어 있는 곳은 (표 5)와 같이 30.8%가 병원도서관 내에 설치되어 있었다. 독서지원 자료구입 담당자는 (표 6)과 같이 사서 35.3%로 저조하였으며, 독서지원 자료 안내 담당자는 (표 7)과 같이 자원봉

표 2. 환자도서관 설치 여부

구분	빈도(N)	평균(%)
설치되어 있다	19	31.7
설치되어 있지 않다	31	51.7
무응답	10	16.7
계	60	100.0

표 3. 환자도서관 담당부서

담당부서	빈도(N)	평균(%)
사회사업실	9	42.9
병원도서관	6	28.6
종교실	4	19.0
총무과	1	4.8
기타	1	4.8
계	21	100.0

표 4. 환자용 도서구입 예산

구분	빈도(N)	평균(%)
있다	22	36.7
없다	23	38.3
무응답	15	25.0
계	60	100.0

표 5. 환자용 자료열람실 설치(분리형)

구분	빈도(N)	평균(%)
병원도서관 내	4	30.8
각 진료과 외래나 전문진료센터	2	15.4
병동 휴게실 내	2	15.4
기타	5	38.5
계	13	100.0

사자가 50%로 나타났다.

독서지원 관련 병실 이동문고 담당자는 (표 8)과 같이 자원봉사자가 54.1%이었고 사서는 2.7%로 조사되었다. 독서지원서비스 제공 대상은 (표 9)와 같이 장기 입원환자(37.6%), 단기 입원환자(32.9%) 순으로 나타났다.

환자용 도서검색 프로그램 설치 기관은 (표 10)과 같이 10%로 매우 저조하였으며, 독서지원서비스 제공 종류는 (표 11)과 같이 도서대출(50%), 자료열람 및 대출(34.3%) 로 조사되었다.

환자가 주로 이용하는 분야별 도서의 우선 순위는 (표 12)와 같이 문학, 교양, 만화, 잡지, 건강, 종교, 예술서적 순이었으며, 자료 유형의 우선 순위는 (표 13)과 같이 종이 책을 대부분 이용하고 있었으나 일부 웹자료나 모바일 전자책 등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6. 독서지원 관련 자료구입 담당자

구분	빈도(N)	평균(%)
사서	12	35.3
종교인	10	29.4
사회복지사	8	23.5
자원봉사자	3	8.8
병원직원	1	2.9
계	34	100.0

표 7. 독서지원 관련 자료안내 담당자

구분	빈도(N)	평균(%)
자원봉사자	21	50.0
사서	8	19.0
종교인	7	16.7
사회복지사	4	9.5
병원직원	2	4.8
계	34	100.0

표 8. 독서지원 관련 병실 이동문고 담당자

구분	빈도(N)	평균(%)
자원봉사자	20	54.1
	11	29.7
사회복지사	3	8.1
병원직원	2	5.4
사서	1	2.7
계	37	100.0

표 9. 독서지원서비스 제공 대상(중복응답)

구분	빈도(N)	평균(%)
장기 입원환자	32	37.6
단기 입원환자	28	32.9
구분없음	11	12.9
외래환자	5	5.9
영유아	4	4.7
종합건강수진자	2	2.4
임산부	2	2.4
기타	1	1.2
계	85	100.0

표 10. 환자용 도서검색 프로그램 설치

구분	빈도(N)	평균(%)
있다	6	10.0
없다	36	60.0
무응답	18	30.0
계	60	100.0

표 11. 독서지원서비스 제공 종류(중복응답)

구분	빈도(N)	평균(%)
도서대출	35	50.0
자료열람 및 대출	24	34.3
질병 관련 근거기반 자료	4	5.7
홈페이지 내 온라인 독서지원	3	4.3
환자 상황별 추천도서	2	2.9
저자 초청 간담회	1	1.4
기타	1	1.4
계	70	100.0

3) 독서지원서비스 활성화 요인 조사

독서지원서비스 활성화 요인 문항으로 사서의 인식과 태도(29개), 제도 개선(6개), 독서교육 과정 이수(7개), 지원 협력 체계(4개), 활성화 방해 요인(1개)로 구성하였다.

본 조사 연구를 위해 1차 예비 조사에서 병원도서관 사서 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기존 사서 4명에 신규로 6명을 추가하여 총 10명의 사서를 대상으로 2차 예비 검사를 실시한 결과 도구의 신뢰도는 신뢰도 계수 0.964%로 나타났다. 측정의 일관성과 오차를 줄이고 그 측정 오차를 파악하여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검사 도구로 Cronbach Alpha 계수를 산출하여 변인에 따른 문항의 내적 일치도를 측정하였다. Cronbach Alpha 계수에 의한 문항의 내적

표 12. 환자 이용 분야별 도서종류 우선 순위

순위	구분	빈도(N)	합계
1	문학서적	35	243.00
2	교양서적	35	240.00
3	만화	24	134.00
4	잡지	20	122.00
5	건강서적	17	95.00
6	종교서적	18	87.00
7	예술서적	11	40.00
8	기타	7	7.00

표 13. 환자 이용 자료유형 우선 순위

순위	구분	빈도(N)	합계
1	종이책	44	215.00
2	웹자료	9	35.00
3	모바일 전자책	7	19.00
4	PC 전자책	5	18.00
5	기타	2	5

일치도 검증 결과는 다음 (표 14)와 같다.

병원도서관의 독서지원서비스에 대한 사서의 인식을 Likert Type 5단계 평정 척도에 반응케하여 1점에서 5점까지 부여하였고, 통계 방법은 PASW 18.0으로 T-Test와 빈도분석 Test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낸 자료를 위주로 해석하였으며, 사용한 통계적 유의수준은 0.05 이하로 하였다. 그리고 활성화 방해 요인에 관한 문항은 복수 응답으로서, 순위를 매긴 결과 가중치를 부여하여 백분율로 계산한 뒤 그 수치를 표로 나타내었다.

논 의

1. 독서지원서비스 운영 실태의 문제점

국내 병원도서관의 독서지원서비스 운영 실태 조사에 나타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환자용 도서구입 예산이 부족하다. 예산은 모든 기관이나 부서에서 업무를 진행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로 국내 병원에서 환자용 도서구입비로 책정하고 있는 연간 예산은 평균 36.7%이었으며, 연간 도서 구입비는 평균 2백만원 정도로 매우 열악한 실정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전문적인 독서지원 전담 사서 인력이 부족하다. 병원에서 독서지원 관련 자료구입 담당자는 사서가 평균

표 14. Crobach Alpha 계수에 의한 문항의 내적 일치도 검증 결과

활성화 요인	설문 문항	Alpha 계수	
사서의 인식과 태도	① 독서지원서비스 제공 인식과 태도	0.96	설문 전체 0.96
	② 독서치료 필요성 유무	0.96	
	③ 독서지원서비스 담당 부서	-	
	④ 독서지원서비스 담당자	-	
	⑤ 향후 독서 지원서비스 제공 종류	0.96	
	⑥ 독서지원서비스 제공 태도	0.96	
제도 개선	① 병원신입평가 시 환자서비스 제공 평가 제정	0.96	
	② 의료기관평가 시 병원도서관 평가 제정	0.96	
	③ 전문도서관평가 시 환자서비스 평가 제정	0.96	
	④ 환자도서관 설치를 위한 의료법 개정	0.96	
	⑤ 현행 도서관법 병원 도서관 명칭 변경 여부	0.96	
	⑥ 정부의 정책적 지원 확대 방안 필요	0.96	
사서의 독서교육 과정이수	① 독서전문 학위과정 필요 유무	0.96	
	② 독서전문가 교육과정 필요 유무	0.96	
	③ 독서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교육과정 필요	0.96	
	④ 환자도서관 설치를 위한 의료법 개정 여부	0.96	
	⑤ 주제별 교육과정 필요 유무	0.96	
	⑥ 독서관련 학회 등의 세미나 참석 여부	0.96	
	⑦ 별도의 독서교육 과정 불필요 유무	0.96	
지원 협력 체계 구축	① 한의도협과 공공도서관협의회 협력 체계 구축	0.96	
	② 지역 내 공공도서관과 도서관협약 체결	0.96	
	③ 대한의사협회와 한국의학도서관협의회 연계 환자 추천도서 등 서지목록 개발 추진	0.96	
	④ 한의도협 및 관련 단체와 연계한 독서전문가 및 독서 치료사로서의 전문적인 교육 과정 필요	0.96	

35.3%, 자료이용 담당자는 자원봉사자가 평균 50%, 병실이동문고 담당자는 자원봉사자가 평균 54.1%로 사서가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셋째, 독립된 자료열람 공간 설치가 미비하다. 의료진들이 이용하는 자료열람 공간과 환자를 위한 공간을 분리하여 설치해야 한다. 환자들을 위해 설치한 분리형 자료열람 공간은 평균 30.8%가 병원도서관, 15.4%는 각 진료과 외래나 전문 진료센터나 병동 휴게실에 설치되어 매우 열악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넷째, 독서지원서비스 제공은 다음과 같이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1) 환자 유형은 장기 입원환자(37.6%), 단기 입원환자(32.9%)로 조사되었다. 2) 도서 대출(50%), 자료열람 및 대출(34.3%) 순이며, 3) 자료 형태의 이용 우선 순위는 종이책으로 나타났다. 4) 건강 및 질병 관련에 대한 보건정보자료 요구도는 평균 4.94%이며, 관련 요구가 있을 평균 44.8%는 제공하는 근거자료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5) 자료 요구가 있는 경우 사서의

회답을 방해하는 요인은 평균 41.3%가 ‘병원시스템상 사서 단독으로 피드백은 불가’하고, 소장자료의 부족(25.6%), 사서의 의학 및 보건정보자료 지식 부족(20%) 순으로 조사되었다.

2. 독서지원서비스 활성화 방안

본 연구 결과 병원도서관의 독서지원서비스 활성화 방안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첫째, 관련 제도의 개선 및 지원 협력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독서지원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개선 조사에 대한 5점 척도 문항에서 평균 3.55%가 ‘환자의 권리와 편의를 위해 각 병원에 환자도서관 설치 의무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의료기관평가, 병원신입평가, 전문도서관 평가에 환자를 위한 독서지원서비스 제공 평가항목이 제정될 수 있도록 한국의학도서관협회와 공공도서관협의회와의 독서지원 협력 체계 구축

이나 대한의사협회와 연계하여 환자 추천도서 목록 등 서지목록 개발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의학사서들의 독서지원서비스 제공에 대한 인식과 태도의 전환이 필요하다. 현재 병원도서관 사서들은 대부분 독서지원서비스 제공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관련 서비스 영역이 도서대출 및 열람에서 신간 안내, 질병관련 근거기반 보건정보자료 제공, 독서치료로 확대되기를 바라고 있었다. 이러한 독서지원서비스는 병원도서관의 의학사서가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 및 간호사 등과 연계함으로써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을 것이다.

셋째, 사서의 전문 독서교육 과정 이수가 필요하다. 환자에 대한 독서지원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사서의 전문 독서교육 과정 이수가 매우 필요하다. 교육과정으로는 독서학위 과정, 독서전문가,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독서전문사서, 주제별 교육과정, 독서 관련 학회 등에 참석해야 한다.

3.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병원도서관의 환자를 위한 독서지원서비스 운영 실태와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이므로 실제 관련 서비스 이용자인 환자와 서비스 제공자인 사서를 모두 대상으로 조사하여야 하나 사서로 제한하였다.

결론

본 연구 결과 병원도서관 사서의 독서지원서비스 제공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며, 환자에 대한 독서지원서비스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첫째, 사서의 인식과 태도 전환, 둘째, 제도 개선, 셋째, 의학사서의 독서교육 과정 이수가 매우 중요한 요소로 제시되고 있다.

앞으로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병원도서관 사서들이 환자에 대한 체계적인 독서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환자들이 처한 상황과 특성을 면밀히 고려한 독서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개발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국문 요약

목적: 본 연구는 사서를 대상으로 병원도서관의 독서지

원서비스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사서들의 인식을 조사하여 병원도서관의 독서지원서비스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다.

방법: 한국의학도서관협회 회원현황 2011을 참조하여 병원도서관 80개를 선정하여, 사서 93명에게 이메일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중 50개 병원에서 62명이 응답하였으나 행정직이 응답한 자료를 제외한 총 60부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결과: 첫째, 병원도서관의 독서지원서비스 운영 실태를 조사한 후 빈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 환자도서관의 설치 비율이 31.7%정도로 저조하게 나타났다. 둘째, 사서들의 독서지원서비스 인식, 독서교육과정 이수, 제도 개선, 지원 협력 체계 구축에 대한 인식과 방해 요인에 대한 문항 등을 조사한 후 빈도분석과 T-Test, Anaova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사서의 배경 변인 중 성별, 학력, 사서 자격 종류 등은 평균 점수에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병원도서관 사서들은 환자에 대한 독서지원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사서들이 바라는 독서지원서비스 활성화 방안은 첫째, 사서의 인식과 태도 전환, 둘째, 제도 개선, 셋째, 사서의 독서교육 과정 이수가 매우 중요한 요소로 나타났다.

REFERENCES

1. Sanghee C, Kyoung-Hee J, Ho-Sin L. Librarians' perception on the service of cinematographic works in libraries and copyright.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2013;30(3):317-335. Korean.
2.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A patient's bill of rights. Chicago: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1972. English.
3. Park OJ. A study on readers' advisory services. Journal of the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2004;38(2):261-289. Korean.
4. Choi SH. Online readers' advisory services for adult patrons : Analysis on american public libraries' service cases. Journal of the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2009;40(4):61-80. Korean.
5. Jang CG. A study on the adoptability of bibliotherapy as one of the library services. Seoul: Ewha Womans University Graduate School; 1985. Korean.
6. Kim GC. Possibility of applying reading therapy in medical library. Journal of the Korean Medical Library Association 2005;32(2):41-52. Korean.

7. Jung EY. A study on the needs for continuous education required for librarian's role as a reading specialist : based on a survey from public libraries in Gyeonggi province Bucheon: Catholic University Educational Graduate School 2009. Korean.
8. Oh MS. A study on the factors activation information services in hospital library. Gwangju; Graduate of Chonnam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1997. Korean.
9. Yoon YD. A study on clinical medicine information service of medical library. *The Libray*;46(5):12-35. Korean.
10. Hong KS. A study for activation of consumer health information service. *Journal of the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2005;36(2):263-281. Korean.
11. Kim MH, Kim YH, Kim EM, Min MR, Sung NT, Lee HY, Jeong SJ. A Study on the Operation Status of Hospital Patient Library and User Satisfaction. *Journal of the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005;31:97-121. Korean.
12. Reading 'can help reduce stress Telegraph, posted March 30, 2009, <http://www.telegraph.co.uk/health/healthnews/5070874/Reading-can-help-reduce-stress.html>.
13. Korean Medical Library Association. Directory of the korean medical library association 2011. Korean Medical Library Association. Seoul: 2011. Korean.